

〈유충렬전〉의 인물 구성과 서술적 특성

정인혁*

— <차례> —

1. 서론
2. 입체적 인물 구성
3. 서술자와 인물의 목소리 착종
4. 〈유충렬전〉의 인물과 서술 특성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영웅소설’은 한국고전소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유충렬전〉은 특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영웅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영웅소설은 유형성이 강한 장르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개별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작품이 속한 장르의 규범을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미 선행 연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듯이, 이는 어디까지나 그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는 차원이자 그 개별 작품의 성격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영웅소설의 대표작으로 인식되어왔던 〈유충렬전〉 또한 그 실체를 보면 소위 ‘영웅소설’의 장르 규범으로부터 다소 일탈적인 측면들을 살필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유충렬전〉의 서사적 특성을 인물과 서술의 차원에서 다시 살펴 재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영웅소설, 〈유충렬전〉, 인물, 서술자의 목소리

*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1. 서론

영웅소설은 한국고전소설사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 가운데 하나이다. 그 방각본과 활자본, 그리고 필사본의 양만 보더라도 소설들 가운데 가장 많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영웅소설이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고전소설을 논할 때 영웅소설을 제외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¹⁾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영웅소설은 고전소설의 대표로 인식되었고 영웅소설의 서사적 특성이 곧 고전소설의 특성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영웅소설만큼이나 유형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²⁾ 그래서 소위 우리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성인양 언급되고 있는 ‘작자 미상, 중국 배경, 운문체, 권선징악적 내용, 행복한 결말, 우연적인 사건 전개, 전형적, 평면적 인물’ 등이 소위 ‘영웅소설’로 분류된 작품들로부터 도출된 것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들이 적지 않은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과연 모든 작품에 대하여 적용할 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받지 않고 ‘영웅소설’의 ‘규칙’으로 통용되는 듯하다. 물론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우리 고전소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각 작품 간의 관계를 살펴 고전소설사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³⁾ 또한 개별 텍스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

1) 서인석, 「영웅소설 연구사의 담론들-논쟁과 편견」,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46면.

2) 서인석은 ‘여러 영웅소설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 패턴’으로서의 ‘영웅의 일생’이라는 개념은 개별 작품의 구조 분석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영웅소설 내부의 유형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같은 글, 61면.

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그 개별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어야지 개별 작품의 개성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웅소설’이라는 장르의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이 이미 제기되기도 했거니와⁴⁾ 이제는 소위 영웅소설로 분류되어왔던 개별 작품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의 하나로 우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충렬전>을 다시 살피고자 한다. <유충렬전>은 영웅소설의 확립기를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져 왔지만,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웅전>을 비롯한 여느 영웅소설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⁶⁾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재 남아 있는 방각본이 전주지방에서만 발간된다든가⁷⁾ 다른 영웅소설들인 <조웅전>, <이대봉전>과 같은 문어체소설과 달리 판소리체소설이 보여주는 문체적 특질을 보인다든가⁸⁾ 하는 점 등도 <유충렬전>의 개성으로 주목될 수 있다. 본고는 기

-
- 3) 임치균, 『한국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와 유형』,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61~3면.
 - 4) 『상서기문』에 언급된 <장풍운전>, <최현전>, <장박전>, <소대성전>의 네 작품의 성격도 저마다 다르다는 점을 들어 그 장르적 규범성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점은 전성운, 서인석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서, 2002 ; 서인석, 앞의 글, 50~1면 참조.
 - 5) 서대석은 <유충렬전>에 대하여 ‘군담소설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작품’으로 조동일은 ‘영웅소설 확립기의 대표적 작품’으로 보았다.
 - 6)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269면.
 - 7) 최혜진, 『<유충렬전>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 『고전문학연구』 제13권, 한국고전문학회, 1998, 124면.
 - 8) 성현경은 <유충렬전>의 인기 요인 중 하나가 판소리의 율문적 문체였다고 하였으며 김병국은 <유충렬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문어체소설과 판소리체소설의 문체적 특질로서 살핀 바 있다.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 『고전문학연구』, 고전문학연구학회, 1974 ; 김병국, 『고대소설 敍事體와 敍述視點』, 『현상과 인식』 5권 1호, 1981.

존의 연구 성과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특히 그 서사적 특성 가운데 인물의 구성 방식과 서술의 측면에 주목하여 <유충렬전>의 특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2. 입체적 인물 구성

일반적으로 하나의 장르는 그 장르에 속한 개별 텍스트 속 인물 해석에 있어 일정한 준거 틀(a frame of reference⁹⁾)을 제공한다. 즉 특정 장르의 일정한 규범은 그 장르에 속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으로부터 그 인물이 겪을 갈등과 그로 인한 사건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영웅소설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은 아마도 전형적인 인물 양상에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인공 영웅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가문의 늙은 부부에게서 태몽을 통해 알게 되는 신이한 혈통을 갖고 태어나는데, 대체로 천상적 존재가 적당한 경우이다.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도사의 도움으로 적대자를 물리치거나 전쟁에서의 활약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한다. 하지만 고난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집단의 가치’를 우선하여 실현하는 방향으로 주어진다. 주인공은 도덕적 품모를 갖춘 인물로 그려지고 선인과 악인은 명백히 구분된다.¹⁰⁾

9) 준거 틀이란 어떤 인물에 대하여 독자에게 제공되는 공적인 정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어린이를 사랑하는 인물’로서의 ‘산타클로스’라든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준거 틀에 부합한 전형적 인물은 우리에게 일정한 패턴의 행동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형적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높아진다.

10) 조동일·서대석 외,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참조.

영웅소설 만큼이나 장르적 특성이 강한 것도 없을 것이다. 또는 그렇게 기대한다. 주인공 영웅은 개인의 영달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수호하거나 실천하는 인물로서 범상한 인물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악인을 응징한다. 영웅소설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안정된 상태를 위협하는 인물은 전형적인 악인으로서 형상화된다. 그렇기에 이들은 출생부터 비범함과 초월적 능력을 드러내거나 또는 악한 성품과 야욕을 드러낸다. 이러한 표지를 통해 우리는 영웅소설의 인물들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한 주인공과 악한 인물의 성격은 서사의 종결까지 유지되며 선하고 악한 인물 이고를 떠나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유충렬전>의 인물들 또한 그 성격의 설정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유충렬은 명문거족 유심이 나이 늦도록 갖지 못하다가 얻은 만득자이다. 원래는 천상적 존재인 유충렬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웅’이 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그에 걸맞게 비범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아기를 살펴보니 웅장하고 기이하다. 천정이 광활하고 지각이 방원하여 초상 갖든 두 눈섭은 강산 정기 씌였고 명월 갖탄 압가심은 천지조화 품어스며 단산의 봉의 눈은 두 귀 맞을 도라보고 칠성의 사인 종학 용준 용안 번듯하다. 북두칠성 말근 별은 두 팔뚝의 박켜 잇고 두렷한 디장성이 압가심의 박켜스며 삼티성 정신 별리 비상의 썬 잇난디 주홍으로 삭여스되 디명국 디사마 디원수라 은은이 박켜스니 웅장하고 기이흐문 만고의 제일이요, 천추의 혼나로다.(20)¹¹⁾

11) <유충렬전>은 이본 간의 세밀한 차이는 있으나 특별히 구조상의 문제를 염두에 둘 만큼은 아닌 것으로 기존 논의에서 정리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최혜진, 앞의 글 참조. 본고에서는 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4 『유충렬전/최고운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을 대본으로 하였다. 인용문의 면수는 인용문 끝에 괄호 안의 숫자로 표기한다.

일일은 혼 꿈을 어드니 천상으로서 오운이 영농하고 일원 선관이 청용을 타고 니려와 말하되, “나는 청용을 차지흔 선관이더니 익성이 무도흔 고로 상제의게 알외되 익성을 치죄하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닛더니 익성으 글 노 흠심하야 빅옥누 잔치시의 익성과 디전흔 후로 상제전의 득죄하야 인간의 니치시미 갈 바를 모로더니 남악산 신령이 부인되므로 지시하시기로 왓 사오니 부인은 익홀하옵쇼쇼.” 하고 타고 온 청용을 오운 간의 방송하며 왓, “일후 풍진 중의 너를 다시 차질리라.” 하고 부인의 품의 달여들거늘 놀니 씨다르니 일장춘몽 황홀하다.(18)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은 권세와 재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지만 자식이 없어 애통해 하였다. 그런 그에게 천상적 존재로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된 유충렬은 아기 때부터 비범하였다. 일반적인 범인의 아이와 그 모습보더 달랐는데 북두칠성과 대장성, 그리고 삼태성이 몸에서 빛나고 더욱이 주홍으로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라는 칭호까지 이미 몸에 새겨져 있었다. 그런 유충렬이기에 칠세가 되었을 때에는 ‘골격이 청수하고 총명이 뛰어나며 필법은 왕희지요 … 무예와 장수로서의 지략은 손무와 오기보다 나왔으며 … 말 달리기와 칼 쓰는 재주는 천신도 당하지 못할’ 정도여서 국가의 흥망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¹²⁾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묘사된 유충렬의 영웅성에 의거하여 유충렬이 고난을 이겨내고 유충렬 개인에게나 천자,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적인 정한담을 이겨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한담 일당의 계략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나 도착한 형산에서 보이는 유충렬의 모습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린다.

12) 세월이 여류하야 칠세의 당하미 골격은 청수하고 총명은 발체하야 필법은 왕희지요, 문장은 이터빅이며, 문예 장약은 손오의게 지니더라. 천문지리는 흥종의 갈마두고 국가흥망은 장중의 미여스니 말달이기와 용검지술은 천신도 당치 못할네라.(22)

충열을 압궐 안고 시이질노 나오며 남천을 바리고 갓업시 도망할시 ... 자 세이 보니 되난 천제흐든 남악 형산이라. 전일 보던 얼굴리 부인을 보고 반 기난 듯 두렷흔 천제당이 완연이 뵈이거늘 부인이 비화를 금치 못흐야 충열 을 붓들고 방성통곡 흐난 말리, “네 이 뵈를 아난다? 칠년 전의 이 산의 와서 산제호고 너를 나앗더니 이 지경이 되야스니 네의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런 변을 모로난고. 이 산을 보니 네 부친 본 듯흐다.” 통곡호고 실푼 마음 엇지 다 충양호리. 충열이 그 말 듯고 부인의 손을 잡고 울며 왈, “이 산의 산제호 고 나를 나이다 딸가? 적시리 그러흐면 산신은 이러흔 연유를 알연마는 산 신도 무정흐네.” (38)

옛 추억에 사로잡힌 장부인의 말을 들은 유충렬의 반응은 천신을 넘어 선 능력을 갖고 국가의 흥망을 손에 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 울어대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이다.¹³⁾ 이는 <조웅전>의 인물 형상과 대조적이다. 비록 어린아이여서 아직 대적할 힘은 미약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이두병을 비판하는 글을 지어 대담하게 붙인 조웅의 모습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¹⁴⁾

13) 이러한 유충렬의 모습에 대하여 박일용은 ‘유충렬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정한담의 행위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수난을 당하는 어린아이로 설정’되고 ‘주인공의 능동적 의지를 강조하는 <조웅전>’과 대조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주인공의 주체적 의지에 입각한 능동적인 지상적 대결구조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충렬전>은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지는 작품’이라고 해석하였다. 최혜진 역시 ‘영웅의 모습 이라기보다는 부모 잃은 고아의 가련한 모습’이라고 평했다. 박일용, 앞의 책, 276면, 각주 14) 참조 ; 최혜진, 앞의 글, 141면.

14) 박일용도 지적했듯이, 이두병의 참소를 받은 조 승상이 죽은 뒤, 이두병의 방자함을 본 조웅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굳은 기개를 펼쳐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웅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분을 참지 못흐야 필낭의 붓슬 니여 거화문의 디서특필호여 이두병을 욱흐난 글 슈 삼구을 지여 쓰고 자취을 감초와 도라오니라.” <조웅전>, 이헌홍 역주, <조웅전>, 한국고전문학전집 『조웅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32면.
또 <유문성전>의 유문성과도 대조적이다.

물론 이러한 고난과 그 기간은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영웅의 능력을 체현하기 위한 준비기간일 수 있다. 비록 그 기간 중에는 영웅적 면모를 보이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유충렬이라는 인물의 각성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칠 년의 유랑 이후에도 유충렬에게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유충렬의 영웅적 면모는 여전히 잠재적일 뿐이다. 부모와 헤어지고 칠 년이나 걸인의 몰골로 떠돌던 유충렬이 가슴 아픈 글귀로 헤어진 아버지의 자취를 발견하고도 취한 행위는 자살하고자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후 유충렬은 강 승상의 도움을 받아 다소 안온한 생활을 하고 강 낭자와 연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강 승상이 정한담의 행위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귀양을 가게 됨으로써 또 한 번의 고난을 당하는데, 이때에도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고 정한담에게 도전하여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될 생각을 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광덕산 백룡사에 의탁하게 된 유충렬은 노승과 더불어 병서를 탐구하고 불경을 의논하며 기이한 술법을 배운다.¹⁵⁾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공

“문성이 그 모친을 붙들어 위로하며, 초상 범절을 극진히 하여 예로써 선산에 안장하더니 오호통재라. 몇 날이 못 되어 또 그 모친이 기세하시니, 이때 문성의 참혹한 정경을 어찌 측량하리오 가련타, 문성이 단독일신으로 일조에 천봉지통을 당하매, 세상 궁박과 팔자 소관을 어찌 언필하리오. 일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부모 뒤를 따라 죽을 생각이 불꽃 같으나 다시 생각한즉, 『모친의 초상 범절과 先塋香火를 뉘께 부탁하리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가다듬어 장례를 극진히 차려 부친 곁에 합장하다. 김기동 외, 『박씨부인전/옥낭자전/유문성전』, 서문당, 1984, 144면.

15) 유성이 그 말을 듣고 일히일비하야 노승을 쓰라 드러가니 제승더리 홉장비레하며 반겨흐난지라. … 세승을 모도 잇고 일신이 무량흔지라. 이후로난 노승과 혼가지로 병

부와 술법의 연마가 유충렬이 영웅으로서의 자기 운명을 각성하는 데에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충열이 놀니여 급피 나와 보니 천자의 자미성이 썩러져 명성원의 잠겨 있고 남경의 살기 가득했거늘 방으로 들어와 혼숨짓고 낙누하니 노승이 왈, “남경의 병난은 낫건이와 산중의 피난한 스름이 무신 근심이 잇시릿가?” 충열이 울며 왈, “소식은 남경 세록지신이라. 국변이 이려하니 엇지 근심이 업시리오만은 적수단신이 만리 밧기 잇스오니 혼탄흔들 엇지 흐리요.”(98)

인용문에서 보듯이 여전히 유충렬은 국가의 위기와 천자의 위협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충렬의 망설임은 노승으로부터 어머니가 남긴 옥함을 건네받고 그 안에서 전투장구류를 얻은 후에도 계속된다. 갑주는 얻었지만 탈 말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모도다 횡장의 간수하고 노승다려 왈, “천형으로 디스를 만나 갑주와 창검을 어더건이와 용마 업서쁘니 장군이 무용지지라.”(100)

때로는 사건 해결의 지연이 서사적 긴장감을 높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유충렬의 영웅으로서의 각성이 반복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유충렬이라는 인물은 영웅으로서의 전형성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진다. 영웅으로서 기대되는 행위를 통해 그 전형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셔도 잠심하고 불경도 확논하니라. 이씨의 디명천지무가직이요, 광덕산중유발승이라. 본신이 천상 스름으로 싹불을 만나쁘니 기이흔 술법을 가르치고 천지일월성신이며 천하명산신령더러 모도 다 흡역하니 그 지도와 영민호물 누라서 당흐리요, 주야로 공부흐더라.(82)

행위의 반복으로 인하여 유충렬의 인물 형상은 애매모호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강 낭자와의 상봉에 앞서 벌어진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유충렬이 출전하여 천자를 구하고 부모와 장인을 구한 뒤, 강 낭자를 그리워하며 영릉에 머물 때, 강 낭자는 청수 가에서 어머니와 사별한 뒤 영릉 고을 관비에 잡혀 와 수양딸이 되어 태수에게 수청들 것을 강요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를 딱하게 여긴 관비의 딸이 대신 수청을 들어주어 절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영릉에 원수가 된 유충렬이 머물고 있음을 안 관비는 강 낭자로 하여금 유충렬의 수청을 들게 하여 사육을 채우고자 한다. 하지만 역시 관비의 딸 연심이 강 낭자를 대신하여 수청을 든다. 다음날 아침 연심이 수청을 든 것을 눈치 챈 관비는 유충렬에게 수청을 들어가지 않은 강 낭자와 연심을 벌할 것을 청한다.

이튿날 연심이 나오다가 제 어미를 만나니 관비 그 괴미를 알고 디로호야 원수전의 알외고 낭자와 연심을 죽이고자 호야 급피 드러가 문안호고 엿자 오디, “소인의 딸이 얼굴이 절식이오, 티도 잇난 고로 상공전의 수청을 보너 써니 제 몸은 피호고 다로 연이 디 드러 갓사오니 두 년을 치죄호옵소서.” 원슈 디로호야, “디로운 년을 나입하라.” (177)

영웅은 호색이라 대명국 원수 유충렬이 관비의 수청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강 낭자가 써준 글귀를 보며 그리움에 사로잡힌 유충렬이 연심과 함께 밤을 보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더욱이 수청 든 자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내기까지 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강 낭자를 그리면서도 수청을 받은 것도 문제요, 자신을 속였다고 화를 내는 것도 영웅의 면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결국 강 낭자와 유충렬의 만남을 다시 한

번 지연시킴으로써 두 인물 사이의 상봉을 극적으로 만든다. 같은 시간에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벽 하나를 두고 사랑하는 이들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독자들은 더욱 애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 남자의 절개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연심이 강 남자의 조력자의 기능을 넘어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대두된다. 서술자는 유충렬과 강 남자의 상봉이라는 이야기의 전개에 자신의 심신을 모두 바쳐 한 여인의 절개를 지켜준 연심이라는 인물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렇게 연심이 주인공이 되는 하위 플롯으로 인하여 주인공 유충렬의 영웅적 이미지는 균열을 일으킨다.

<유충렬전> 인물들이 익히 ‘영웅소설’의 인물들로서 기대되어 왔던 전형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애매모호함을 보이는 것은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이나 정한담을 돕는 옥관대사 등에게서도 나타난다. 개국공신 유기의 후손이자 충신으로 묘사된 유심은 자신을 참소한 정한담에게 나라가 망하더라도 ‘네놈이 죽는 꼴을 보겠노라’는 저주¹⁶⁾를 내린다. 개인적 관계 속에서는 정한담을 죽이고도 싶겠지만, 정한담이 죽는다는 것은 곧 나라의 위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언급은 만고충신이어야 할 유심이라는 인물의 발화라고 하기에는 매우 경솔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치밀하고도 악랄하게 아녀자까지 제거 하던 옥관대사가 일순간 너무도 초연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¹⁷⁾ 이러한 인물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와 태도의 돌변은

16) 혼담이 청영하고 승상부 늙피 안자 유심을 자바니여 수지흐는 말리, ... “어셔 밧비 발헝허라. 만일 잔말허다가는 능지처참허리라.” 주부 이 말을 드르미 분심이 창천허야 양구의 허난 말리, “니 무삼 죄 잇판디 연복으로 간단 말가. 왕망이 섭정허미 혼실리 미약허고, 동탁이 작난허니 충신이 다 죽것다. 나 죽은 후의 니 눈을 췌여 동문의 높비 달아 가달국 적장 손의 너의 머리 췌러지난 줄 완연이 보리라. 지흐의 도라가되 오자서의 충혼이 붓그럽게 말나.” (28)

영웅소설에서 인물들에게 기대했던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소한 그 인물을 그 인물답게 하는 성격의 <지속성>이 유충렬전의 인물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유충렬전>의 인물들은 정의로운 영웅이나 사악한 악인이나 평면적이고 전형적이기 보다는 그 성격이 오히려 입체적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의 돌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발화가 과연 그 인물의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3. 서술자와 인물의 목소리 착종

하나의 서사체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나는 서술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물의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소리는 상호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개의 목소리는 분명 따로 존재한다. 하나는 서사 내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서사 밖에 위치한다. 그런데 <유충렬전>의 경우, 인물의 목소리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인해 뚜렷이 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그 인물의 것인지, 아니면 인물의 목소리를 빈 다른 존재의 것인지 혼란스럽다. 다음은 유충렬이 정한담의 악행을 돕는 모사, 옥관대사를 사로잡아 문초하는 장면이다.

17) 도사 옛자오디, “궤군지장은 불가이어룡이라 하니 차막비천명이라. 무삼 말삼 호오릿가만은 소인이 신기흔 술법을 비와 전장의 나을 제 사희 신장이며 디명국 강산 신령과 천귀만신과 이미망양 어두귀면지졸과 천지기벽 후의 신장귀졸을 모도 다 불너니 여 지위간의 너혀두고 승천입지하여 성산성희하며 변화무궁터니 그 중의 유독 서희 광덕산 빅용사의 잇난 노승과 남히 형산 화선관이 소인 영을 좇지 안아호기로 고이 알아삼터니 전일 원슈 접전호시는 법을 보오니 굽주 창검도 천시의 존화거니와 빅용사 노승은 원슈 우편의 옹위호고 남악 형산 화선관은 좌편의 시위호여쓰니 소인인들 엇지 호오릿가. 주판지세로 빠오기는 이리 될 주를 알아쁘나 죽사온들 무삼 혼이 잇사오릿가.” (206)

이찌 원수가 천자와 부왕을 모셔 황극전의 전좌하시고 오국 사신례를 바다 문목수죄흔 연후의 옥관도스를 잡아드려 게흔의 업지리고 슈죄 왈, “간사흔 도사놈야. 네 천지조화지술을 비와 정한담을 가라쳐 신기흔 영웅이 황성니의 잇난 주를 알고 광덕산의 사러나서 너 죽일 주를 모로난야? 네 전일의 정한담다려 헝기를 ‘천지일시라 급격물실허라’더니 엇지 조고만 유충열을 못 자바서 너의 놈더리 몬져 다 죽난야.” (206)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이는 분명 원수 ‘유충렬’이다. 흥미로운 것은 밑줄 친 부분에서 서사 내에 존재하는 인물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사 내에 제한된 인물로서 유충렬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한담과 옥관대사가 유충렬을 제거하고자 모의하던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혹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한담과 옥관대사가 모의하는 장면, 그리고 천자를 도모하기 위해 거병하는 장면을 보자.

A. 도사 문밖기 나와 천기를 자쇠이 보고 들러와 흐는 말리, “이시의 밤마닥 살피온직 두려운 일이 황성의 잇난이다.” 혼디, 혼담이 문왈, “두러온 일이라 흐오니 무삼 일이 잇난잇가?” 도사왈, “천상의 삼티성이 황성의 빗쳐스되 그 중의 유심의 집의 빗쳐스니 유심은 비록 연경의 가수나 신기흔 영웅이 황성니의 살아스니 그디 도모홀 일리 어려울 싯흐노라.” 혼담이 이 말을 듯고 외당의 나와 도사 흐든 말을 일귀다려 하니 일귀 더왈, “도스의 신기힘은 천신의게 지니나니 신기흔 영웅이 황성니의 잇다 하니 진실노 마암이 황공허여이다.” 혼담이 왈, “니 싯각 하니 유심이 년만허되 자식이 업난 고로 수년 전의 형산의 산제허여 자식을 어덧싸 허더니 도사의 말삼이 황성의 잇다 하니 의심허건디 유심의 아달인가 하노라.” (34)

B. 이씨 정흔담과 최일귀이 말을 듯고 더히하야 급피 별당의 드러가 도스를 보고 박기 도적이 이러났단 말을 하고 더스를 무르니 도스 문의 나서 천기를 살핀 후의, “시지시지로다. 신기훈 영웅이 황성년의 잇난가 하였더니 이제 죽어쓰며 써 맞추워 도적이 이러나쁘니 이는 그더 천자 흘 수라. 급격물실하라.” (84)

인용문 A는 유심을 참조하여 유배를 보낸 후 옥관대사가 정한담에게 조언하는 장면이다. 최대의 정적인 유심을 멀리 귀양 보내는 데 성공한 정한담과 옥관대사에게 황성에 비친 영웅의 기상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유심의 아들, 유충렬일 것을 짐작한 이들은 그를 제거하고자 한다. 이들의 대화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이고 공간은 정한담의 집으로 철저히 폐쇄된 곳이다. 이 때 유충렬의 나이는 일곱 살로 유충렬이 아무리 천상으로부터 내려온 존재요, 영웅의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의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충렬이 옥관도사를 치죄하면서 이렇게 진술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유충렬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발화에는 서사 내에 속박되지 않은 서술자의 지각이 들어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인용문 B의 옥관도사의 말, 즉 “급격물실하라”는 서사의 외부에 존재하기에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¹⁸⁾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지각되지 않고는 서술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사 내적 인물의 지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심의 다음과 같은 발화에서도 알 수 있다.

빌기를 다 혼 후의 만심 고더하던 차의 일일은 혼 꿈을 어드니 천상으로

18) 서술자는 인물들은 쉽게 이를 수 없는 우월한 위치에서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뛰어넘거나, 혹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9, 124면.

서 오운이 영농하고 일원 선관이 청용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용을 차지한 선관이더니 익성이 무도한 고로 상제의게 알외되 익성을 치죄해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글노 힘심하야 빅옥누 잔치 시의 익성과 디전흔 후로 상제전의 득죄하야 인간의 니치시미 갈 바를 모로더니 남악산 신령이 부인덕으로 지시하시기로 왓사오니 부인은 익홀흡쇼셔.” 하고 타고 온 청용을 오운 간의 방송하며 왈, “일후 풍진 중의 너를 다시 차질러라” 하고 부인의 품의 달여들거늘 놀니 씨다르니 일장춘몽 황홀하다. (18)

주부 기운이 쇠락하야 부인을 돌아보와 왈, “이 아히 상을 보니 천인적강 적실하고 만고영웅 분명하며 전일 황상게옵서 도읍을 옮기고져 하야 창해국 사신 임경천다러 무르시니 임경천이 알외기를 북두 정기난 남경의 하강하고 자미원 디장성이 황성의 썩러져스니 미구의 신기흔 영웅이 나리라 하더니 이 아히가 적실하니 엇지 안이 질겨오릿가. 오리지 안이하야 디장 절월을 요하의 황드하고 상장군 인수를 금낭의 년짓 너코 부귀영화난 선영의 빛니고 밍기 영풍은 사희의 진동홀제 누 안이 칭찬하리요. 산신의 집푼 은덕 사후의도 난망이요, 빅골인들 이질손야.” (22)

어머니 장씨가 곧 태몽과 이미 있었던 창해국 사신의 이야기로 인하여 유심과 부인이 아들 충렬이 천상적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정적이자 집안의 원수인 정한담이 천상적 존재인 익성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다. 서사 내에 속박된 유심은 유충렬로 태어난 청룡을 다스리는 선관과 갈등을 일으킨 무도한 익성이 정한담으로 태어났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한담이 본래 익성임을 알고 있는 것은 서사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 서사를 초월한 서사 외적 초점화자¹⁹⁾이다.

19) 말하는 서술자와 서사의 여러 요소들을 바라보거나 지각하는 초점화자는 보통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하는 자가 반드시 보았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쥬부 디로 왈, “죄목이 열 가지니 자세히 드르라. 네 놈이 천상 익성으로 명국의 적강하야 용땡이 절인흐미 도스를 다리다가 노코 항상 천자를 도모코져 하니 만고의 큰 죄 하나이요, 조정의 직신을 꺼려 무죄흔 신희를 무흠하야 나를 연경의 귀양보이니 죄 두리요, 도사놈의 말을 듣고 신기흔 영웅이 황성의 잇다흐미 니 자식을 절박하야 물 속의 더져 죽이려 흔 거시 죄 세시오, 티지상 강희주를 역적으로 몰아 옥문관의 보니여쁘니 죄 너이요, 강승상의 가솔을 잡아다가 중노의셔 죽은 거시 죄 다섯시오, 황후 티후 티자를 사로잡아 진중의 가두어 주려 죽게 흐미 죄 여섯시오, 충신을 다 죽이고 천자를 속여 도적을 막으려 하다가 도적의게 흥복흐미 죄 일곱이요, 자충 천자라 하야 심민을 도탄흔고 충신을 잡아 항복밧고져 흐미 죄 야달이요, 호국의 청병하야 황후 티후 티자를 호왕의게 잡혀 보느고 장안 미식 보화를 모도도 탈취하야 남적의게 보닌 거시 죄 아홉이요, 천자를 번수 가의 죽이려 흐미 죄 열 가지라. (166)

유심의 발화 내용이 외적 서술자의 사건 요약이라는 점은 언급된 일곱 가지의 죄가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에 의거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순서와 같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자와 인물의 목소리 간섭을 김병국은 ‘서술시점’의 차원에서 살핀 바 있다.²⁰⁾ 김병국에 따르면 서술자의 어법이 인물의 발화에 직접 인용되어 침투하고 있는 것은 문어체소설에서는 흔히 보이는 현상이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든다.

보는 자가 반드시 말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충려전>의 경우, 서술자는 서사 외에 존재하며 그의 시선 역사 서사 밖에 존재하는 시선이므로 <유충렬전>의 서술자는 서사외적 서술자이며 동시에 서사 외적 초점화자이다. 초점화자와 서술자의 개념은 미케 발, 한용환 외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참조.

20) 김병국, 앞의 글, 40면.

길동이 도라와 백미 수십석을 보내고 중인을 불러 왈, “내 아모날은 그 절에 가 이리이리하리니 그대 등은 뒤훔 조차와 이리이리하라.”하고...

인물 길동이 하는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며칠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것인데, 길동이 언급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내용까지 서술자가 개입하여 생략한 것이다. 이 역시 서사 외적 서술자와 서사 내의 인물 간의 목소리 착종의 한 예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목소리의 착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면 <유충렬전>의 경우는 이러한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의 부딪힘에서 나온 서술적 불일치 내지 생략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소리 대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 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인물의 인식에 서술자의 것이 침투됨으로써 서사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¹⁾

일반적으로 서사물에서 서술자는 언어학적인 주체이고 기능이지, 텍스트 구성에 필요한 언어 자체를 표현하는 작중인물이 아니다.²²⁾ 특히 대개의 고전소설에서 서술자는 자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서사 외적 서술자이다. 그러나 <유충렬전>에서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을 통해 인식한 정보를 인물의 목소리를 빌어 이야기함으로써 단순히 사건을 서술하는 기능에 멈추지 않고 서사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21) 이와 관련하여 김병국은 판소리서사체의 경우, ‘서술자의 어법이 인물의 발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언어가 서술자의 언어에 영향을 끼치거나 서술자가 인물의 말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유충렬전>의 경우에는 김병국이 문어체소설이라 일컬은 영웅소설의 하나지만 바로 이러한 판소리체소설의 문체적 특질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개성적이다. 김병국, 앞의 글, 46면.

22) 미케 발, 앞의 책, 215면.

4. 〈유충렬전〉의 서술 특성과 의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심이 정한담을 문초하는 장면에서 유심에 의해 열거되는 정한담의 죄상은 죄목의 경중이나 발화자인 유심의 입장에서 부여된 나름의 가치에 의해 선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발생순서 그대로 기술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술자가 장면 전환 시에 앞선 사건들을 그 발생 순서대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다. 즉 장면 전환 시에 앞선 사건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술자에 의한 요약제시가 일반적이다.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각설 이찌 강낭자 목심을 도망호야 청수가의 오다가 모친은 청수의 썩져죽고 낭자는 영능골 관비게 잡혀 와 머무나 천비 허난 형사가 고금이 다를손야 (192)

강 승상이 유심을 위한 상소를 올렸다가 정한담의 미움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된 후 강 승상의 집에 거하던 유충렬과 강 승상의 아내, 그리고 유충렬과 연을 맺게 된 강 낭자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후 서사는 서로 헤어진 인물들을 따라 교차되면서 서술되기 때문에 장면의 교체 시에 이와 같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충렬전〉에서는 이와 같은 서술자의 앞선 사건에 대한 요약제시가 인물의 입을 빌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경우를 보인다. 위 인용문의 내용은 유충렬과 재회한 강 낭자의 입을 빌어 반복 제시된다.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안이라 이 골 월계춘 사는 강승상의 무남독녀옵더니
... 정한담이 충신을 모함호야 승상을 옥문관의 귀양호고 소녀의 모녀를 잡아 궁비속공호라 호고 금부도사 와 잡아갈 제 청수의 야간 도주호야 모친은

물의 빠져 죽고 소녀도 죽으려 헛더니(198~200)

위 두 인용문은 각각 서술자에 의한 요약제시와 인물에 의한 회상이다. 내용은 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자의 서술이 서술자에 의해 설명하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자의 것은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²³⁾

‘설명하기’는 독자에게 서술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다. 어떤 사건의 전후 사정, 원인과 결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데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서술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철저히 주관적인 것을 수도 있다.

반면 ‘보여주기’는 권위적인 서술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넘겨준다. 그런데 독자는 비인격적인 서술자보다 인물의 시선을 쫓아가기 쉽고 그만큼 인물의 목소리에 동화되기 쉽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목소리에 잠입하여 마치 인물이 말하는 것인 양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전달력을 얻는 것이 된다.

그리고 더욱이 그 서술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민중들이 바라는 것과 같다면 이러한 서술적 특성은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유충렬전>이라는 텍스트는 저 멀리 이야기책 속의 허구적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²⁴⁾ 그것이 독서되는 순간, 또는 전기수에 의해 낭독되는 순간만큼은 바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숨 쉬는 텍스트,

23) 이와 관련해서 박일용은 주관적인 서술적 장면 묘사를 미메시스의 예로 보았다. 박일용, 앞의 책, 311면.

24) <유충렬전>의 인기 이유와 관련하여 심우장이 언급한 ‘독자의 세계로 이야기 세계가 확대되어 나온다’는 것도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 파악된다. 심우장, 「<유충렬전>의 담론 특성과 미학적 의의」, 『冠嶽語文研究』 제28집, 2003, 291면.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²⁵⁾

한편 서사 외적 초점화자의 시각을 얻은 인물, 즉 초점화자가 인물과 일치한다면, 그 인물 역시 다른 인물보다 독자와의 교감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물은 보통 그 시각의 범위가 서사 내로 한정되기에 인물의 진술은 그가 '지각한' 공간 내로 한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사 외적 초점화자의 시각을 부여받은 유충렬은 전지적 서술자에 비견되는 능력과 권위를 갖게 된다. 말 그대로 '초월적 영웅'이 되는 것이다.

조수삼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기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숨을 멈추고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서야 다음 부분을 읽어주었다는 요전법을 행했다. 요즘과 같이 수많은 콘텐츠가 전문적인 창작자들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과거에 하나의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다 해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유충렬전>과 같이 인기 있는 작품은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청중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청중들을 지속적으로 서사에 몰입시킬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이야기 세계의 인물들과 독자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야기 세계와 독자 간의 거리를 매개하는 서술자를 소거하는 방법 또한 이야기 세계와 독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서술자는 인물 뒤로 숨고 인물은 서술자의 시각을 얻는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서술자와 인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독자 또는 청중의 서사 세계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25) 전기수의 낭독에 의한 영웅소설 향유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서인석의 「구운몽 후기 이본의 문체의 변이와 그 의미-가사체 이본의 경우」(『인문연구』 14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를 참조.

그러나 <유충렬전>이 이와 같은 서술적 특징만으로 그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충렬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이야기를 향유하는 이들과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곧 유충렬이라는 인물의 심리적 기능²⁶⁾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충렬전>을 향유했던 이들은 유충렬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였고 그를 통해 영웅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5. 결론

<유충렬전> 역시 여느 영웅소설과 같이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는 전형성을 보이기도 하고,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있으며 묘사는 투박하고 때로는 감정의 과잉이 서사적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별히 문학적 완성도를 거론하기에는 다소 문제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때로 돌발적이기까지 한 인물의 모습이라든가 서사의 안과 밖을 모호하게 만드는 목소리의 중첩과 같은 현상들을 단순히 작가의 실수라든가 또는 불완전한 문학성의 결과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유충렬전>만의 독특한 서사적 특성들로 재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사체의 인물은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개별적이거나 전형적일 수 있다. 세계와 대립하는 주인공은 개별적이고 세계와 대립하기보다 그 집단을 대표하는 주인공은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다.²⁷⁾ 이런

26) 심리적 기능이란 등장인물이 작가의 심리를 투영하고 또 소설 읽는 독자가 등장인물에게 자신을 투영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다.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26면.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유충렬은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민중들, 전란 속에
신음하는 약자들의 편에 서있는 전형적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유충렬은
민중들과 여성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전형적 영웅’
이 되는 것이다. 즉 ‘영웅소설’이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전형적’ 영웅이 아
니라 영웅을 바라는 민중들의 대표로서의 전형적 ‘영웅’인 것이다. 그렇기
에 유충렬은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을 갖고 텍스트에서 생생하게 살아나
민중들을 대표하게 된다. 이것이 똑같이 민중들을 구하는 영웅이면서도
웬지 우리의 영웅인 것 같지 않은 초월적인 영웅들, 전형적인 다른 영웅
들과의 차별성이 아닐까.

참고문헌

자료

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4 『유충렬전/최고운전』, 고려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이현홍 역주, <조웅전>, 한국고전문학전집 『조웅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32면.

김기동 외, 『박씨부인전/옥낭자전/유문성전』, 서문당, 1984, 144면.

단행본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269면.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26면.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서, 2002.

조동일·서대석 외,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미케 발, 한용환 외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27) 같은 책, 33~34면.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9, 124면.

논문

- 김병국, 「고대소설 敍事體와 敍述視點」, 『현상과 인식』 5권 1호, 1981, 29~47면.
- 김현주, 「고소설의 구술적 서사 패턴: <유충렬전>에 나타나는 반복 병치 및 중첩 연쇄의 서사 패턴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11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91~114면.
- 서인석, 「구운몽 후기 이본의 문체의 변이와 그 의미-가사체 이본의 경우」, 『인문연구』 14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65~89면.
- _____, 「영웅소설 연구사의 담론들 -논쟁과 편견」,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41~70면.
-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 『고전문학연구』, 고전문학연구학회, 1974, 35~64면.
- 심우장, 「<유충렬전>의 담론 특성과 미학적 의의」, 『冠嶽語文研究』 제28집, 2003, 289~326면.
- 임치균, 「한국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와 유형」,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60~85면.
- 최혜진, 「<유충렬전>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 『고전문학연구』 제13권, 한국고전문학학회, 1998, 121~151면.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and the voice of
narrator of <Yuchungnyeol-Jeon>

Jung, In-Hyouk

‘Heroic Novel’ is one of the most beloved genre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 novel. Among them, <Yuchungnyeol-Jeon> was the most popular work. So, <Yuchungnyeol-Jeon> has been regarded as a ‘typical type’ of heroic novel.

‘Heroic Novel’ has been regarded as a typical genre. Therefore, when we want to understand a text, it is useful to know the rules of the genre which include the text. But, this is not an absolute standard for evaluating the text but one way of understanding the text.

It is a problem that <Yuchungnyeol-Jeon> is regarded as a typical heroic novel. Because, there are something that dose not match the rules of ‘herioc novel’ in the text, <Yuchungnyeol-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think the narrative features of <Yuchungnyeol-Jeon> through the character and narrative.

Key Words heroic novel, <Yuchungnyeol-Jeon>, character, voice of narrator.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계재확정일 : 2011. 12. 05